

꼭두새벽 투표 장사진...광주 유권자 “그만 싸우고 민생 살려야”

투표 개시 30분 전부터 남녀노소 긴 줄...투표소 혼동에 헛걸음도 “상호 비방·정쟁·색깔론은 이제 그만”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일인 10일 광주 지역 각 투표소에서 주권자 권리를 행사한 시민들은 새 일꾼들을 향해 “막말·혐오로 일룩진 정쟁을 끝내고 오로지 민생 살리기에 전념해달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오전 광주 남구 한 태권도장에 마련된 진월동 제5투표소장 입구에는 투표 시작 30분 전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긴 투표 행렬에는 아르바이트 가기 전 투표소를 찾은 대학생,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할머니, 어린 자녀를 품에 안은 아버지, 노모 손을 꼭 잡고 찾아온 중년 남성 등 남녀노소 가릴 것 없었다.

공공기관이 아닌 태권도장에 투표소가 마련되자 “여기 맞아요?”라고 거듭 묻는 유권자도 있었다.

오전 6시 정각, “시작하겠습니다”는 안내에 맞춰 유권자 20여 명이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거나 설레이는 듯한 표정으로 투표소에 들어

섰다.

선거관리사무원들은 선거인 명부 등재 번호와 신분증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투표용지를 건넸다. 등재번호와 맞지 않은 투표소를 찾아 헛걸음한 유권자도 있었다.

백발의 90대 유권자는 출마 정당이 역대 선거에서 가장 많아 51.7cm에 이르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건네 받은 뒤 “이것이 몇 개여?”라며 당혹스러워하기도 했다.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투표 인증사진을 촬영하거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며 저마다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반면 착잡한 얼굴로 투표소를 나오며 “기대도 안 한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유권자도 있었다.

진월동에 사는 손모(59·여)씨는 “여·야 정쟁에 질렸다. 싸움을 멈추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를 해달라”고 정치인들에게 당부했다.

대학생 한모(25)씨는 “지역 정서보다는 범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등 후보 개개인의 인물과 정책을 보고 투표했다. 공약을 잘 지켜달라”고 밝혔다.

아들과 함께 투표를 마친 김모(90)씨는 “국민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민생을 잘 돌봐달라”며 민생을 강조했다.

비슷한 시간대 북구 우산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우산동 제1투표소도 투표 시작 20분 전인 오전 5시40분부터 유권자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출근 전 일찌감치 투표소를 찾은 중년의 남성부터 밤새 족구를 보다 나왔다는 대학생, 아침 운동 삼아 나온 부부 등이 투표에 동참했다.

차분한 투표소 분위기에 작은 소동이 한바탕 벌어지기도 했다. 중년 여성이 갑자기 “이거 (기표 도장이) 반 밖에 안 찍혔는데 어찌죠”라며 자신의 투표용지를 펼치려던 것.

선거관리원들은 “그거 펼치면 안돼요! 기표된 것 저희에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라고 다급히 외치며 제지했다. 이후 “절반만 찍혀도 된

다”는 설명을 들은 유권자는 멧쩍게 웃어 보이며 투표함에 자신의 표를 집어 넣었다.

투표소를 잘못 찾아온 유권자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한 30대 유권자는 “여기 중흥동 투표소 아닌가요?”라고 물었다가 되돌아갔고, 또 다른 중년 유권자는 “바로 옆 아파트 사는데 왜 등재번호가 다르냐. 집 앞이라서 당연히 여기에서 투표를 하면 되는 줄 알았다”며 머쓱한 듯 발길을 옮겼다.

인근 전남대 컨벤션홀에 마련된 용봉동 제4투표소에는 ‘목욕 재계’까지 한 일가죽도 있었다.

이른 아침 부모님과 목욕탕에 들렀다가 투표소로 왔다는 김모(42·여)씨는 “목욕 재계를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투표했다”며 미소지었다. 그러면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정치를 벗어나 새로 뽑힐 대표자는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며 빼 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시의 출근 전 일찍 투표소를 찾은 김옥(62)씨는 “목수 일을 하는데 지금 경기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먹고 살기 참 힘들다”며 “당선자들이 친절한 경기가 되살아 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역설했다.

문흥1동 제4투표소가 설치된 문산초등학교도 담관 앞에서 간혹 투표소를 잘못 찾은 유권자들을 빼면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됐다.

유권자들은 무사히 투표를 마치고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왔지만 정치권을 향한 목소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했다. 특히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표심에 담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모(72·여)씨는 “한 표라도 보태서 나라가 변하길 바란다. 물가, 실업률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라며 “내가 던지는 한 표로 긍정적 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강모(59·여)씨도 “매일 짜증나는 상호 비방성 유세 소식을 들으면서 얼굴이 찌푸려졌다. 어느 한 쪽에서 막말 붓물을 터트리면 여기저기서 비슷한 험한 말이 선거 기간 동안 오겠다”며 “정치가 품위를 잃었다. 품위를 잃은 정치에 변화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했다”고 강조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영택(57)씨는 “뉘라도 바뀌어야 한다. 색깔론도 지쳤고 조금이나마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후보를 뽑기 위해 투표할 때마다 노력하려 한다”며 “파벌 싸움, 막말은 이제 끝나야한다. 내 한 표가 의미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군 섬 주민들도 ‘소중한 한표’ 행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전남 신안군 하의면 신도 주민들이 선박을 이용해 당투선착장에 도착, 투표소로 이동하고 있다.

도읍 선도와 압해읍 매화도, 증도면 병풍도, 임자면 재원도, 비금면 수지도 등 17개소는 본섬이 아닌 부속섬에 설치됐다.

이날 오전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작은섬 흑산면 장도 주민들은 본섬, 흑산면 상·중·태도 주민들은 하태도, 하의면 신도 주민들은 본섬 대리로 선박을 이용해 옮겨 투표에 참여했다.

선관위는 작은 섬 주민들의 원활한 투표 참여를 위해 선박 9대와 승합차 등을 임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 신안지역 투표함은 가거도와 태도·만제도 등 먼섬은 쾌속선을 인차해 수송하고, 기상 악화시에는 해경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도 해경함정 17척을 동원해 전남·북 지역 54개 도서의 67개 투표함을 수송·호송에 나선다.

이들 중 5개 투표함은 직접 수송하고, 육지로 이송되는 나머지 투표함 62개에 대해서는 근접 호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해상의 기상여건은 투표하기 위해 이동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면서 “사전투표와 고령자들의 거소투표가 많아 예전같은 단체 이동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전남 신안군의 작은 섬 주민들도 선박 등을 이용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섬으로 형성된 신안군의 유권자는 3만 5288명이다.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에는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1만 9342명(54.8%)이 참여해 전국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소는 섬이 많은 흑산도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압해읍 6곳, 지도읍 5개소 등 14개 읍면에 모두 50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는 대개 큰 섬에 설치돼 있다. 다만 지

“22대 국회, 다문화 편견 깨뜨려주길” 귀화인도 투표장으로

“갈등·분열 벗어나 화합하는 사회 만들어야”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귀화인들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같은 조상을 둔 한핏줄인 고려인을 향한 관심과 포용을,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없는 하나 된 사회의 완성을 바랐다.

신조야 광주고려인마을 대표는 1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우산동 제4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고려인 출신인 신 대표는 지난 2006년 대한민국에 입국, 2015년 정식으로 국적을 얻어 현재 어엿한 광주시민이다.

국적을 얻은 뒤로부터는 매 선거에 꼬박 꼬박 참여하고 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 이어 이날 국회의원 선거까지 참여하며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신 대표는 고려인을 향한 관심과 포용을 당부하며 매 투표에 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고려인 입국 사례가 많아지고 관련 사회 규모가 커지면서 인식의 변화와 이에 발맞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특히 일제강점기 연해주 등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점을 들면서 오늘날 많은 고려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엿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길 바라고 있다.

신 대표는 “일제의 만행을 피해 연해주에 정착했던 조상인들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흩어졌다. 국적조차 얻지 못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오던 고려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며 “현재 고향 대한민국이 손을 뻗어준 덕에 많은 동포들이 고향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고려인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일일이 증명하고 다녀야 했다. 같은 조상과 뿌리를 뒀지만 인정받지 못했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우산동 제4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

던 것”이라며 “제22대 국회는 내국인과 고려인 모두가 한민족임을 인식해 흥분도 장군 논란과 같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불필요한 일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임형택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